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2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수요 강단 - 마태복음 ☉

### 율법의 완성자 (마 5:17-20)

### The One Who Fulfills the Law (Matt. 5:17-20)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폐하러 온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을 해석한 책까지 만 들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것들을 수십, 수백 가지를 정하여 지키는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공연하게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가 지탄하고 정죄하는 세리나 창녀, 그 밖의 여러 부류의 죄인들을 변호하는 언사를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은 20회 이상이나 이 죄목으로 예수님을 음해하며 공격했고, 결국 신성모독죄로 사형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17절)고 말씀하십니다. The Perfector of the Law,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것입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Jewish people thought that Jesus had come to the world to abolish the law and the prophets. At that time they had a book of rules and regulations as well as the law. They had difficulty to observe the many hundreds of rules set up and so they were not able to fully keep the Sabbath based on these rules and regulations. However, Jesus publicly healed the sick on the Sabbath day. Moreover, Jesus didn't hesitate to defend tax collectors, prostitutes who were criticized and condemned by a society, or anyone else who committed a crime.

Reading the Gospels, Jewish people conspired against and attacked Jesus Christ on the charge of these crimes more than 20 times. Finally they condemned Jesus to death for blasphemy. However, Jesus said, “Do not think that I have come to abolish the Law or the Prophets; I have not come to abolish them but to fulfill them” (v. 17). Jesus Christ came to fulfill the Law as “The Perfector of the Law.”

1. 완전한 율법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18절).

우리는 때때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율법은 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율법에 매인 바 되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다.”는 식의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한 것이지, 율법 그 자체를 비판하거나 정죄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로마서 7장은 이런 율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7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2절에 보시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도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고 말씀하십니다.

2.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은 율법의 일점일획도 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선포하며, 사도 바울도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신령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함은 율법이 완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여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또 지킬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합격점을 받을 육체가 전혀 없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하지만 결코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그것을 지켜서 의를 세우라 함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롬 3:31).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므로 그 율법에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억지로나 아니라 은혜로 율법을 더욱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기쁨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The complete Law

“I tell you the truth, until heaven and earth disappear, not the smallest letter, not the least stroke of a pen, will by any means disappear from the Law until everything is accomplished” (v. 18).

We sometimes misunderstand and think that the Apostle Paul disliked, opposed the Law, and asserted that the Law is evil. Paul spoke such things as, “We are bound by the law.” “The law gives us the reprobation.” However, we severely misunderstand him. The Apostle Paul spoke of the Law to point out that it cannot be observed, never to criticize or blame the Law itself.

Chapter 7 in Romans intensively deals with the Law. It is written, in verse 7, “What shall we say, then? Is the law sin? Certainly not.” And it is clearly written, in verse 12, “So then, the law is holy, and a commandment is holy, righteous and good, and in verse 14, “The law is spiritual.”

2. The perfecter of the Law

Jesus says that the Law cannot be changed, not even the smallest letter, and not the least stroke of a pen. David declared that God's law is complete, and the Apostle Paul declared that the law is God's law; holy, righteous, good, and spiritual.

And yet the fact that Jesus came to fulfill the Law and prophets means that the Law is not incomplete, but we didn't observe the law and couldn't observe it because we are not complete.

The Bible says that there is no one who gets through the passing mark in order to be righteous in front of God owing to the behavior of the law.

The purpose of the Law given by God is to be complete, but we cannot become complete by observing the law. The Law is to reveal to us that we are sinners.

My beloved Christians!

“Do we then, nullify the law by this faith? Not at all! Rather, we uphold the law” (Romans 3:31).

By the behavior of the law, there is nobody who is righteous before God. But the reason why Jesus came to the world is that He adds the grace to the law. Therefore, now, we are not forced but we make greater efforts to observe the law with grace.

Thanks to the grace of our Jesus Christ's Cross, by making the law become joy,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us will be God's people.

# 2012년 순결서약식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2012년 순결서약식이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열린다. "주를 향해 자기를 깨끗하게"(요일3:3)를 주제로 거행되는 순결서약식은 성의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레 11:44)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자 함이다.

대상은 13세 이상의 모든 미혼 남녀로 결혼전까지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순결을 서약한다. 순결서약을 한 젊은이들에게는 항상 서약을 상기할 수 있도록 '순결서약서'와 '순결 서약 기념품'이 주어진다.

## 정태기목사 초청 특별금요기도회

- 1월 13일(금) 오후 8시 20분, 치유와 회복 특강 -



1월 13일(금) 금요기도회는 신년을 맞이하여 정태기 목사(현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 원장)를 초청하여 크리스찬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기도회를 가진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

- 정태기 목사(현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 원장)
- 한국신학대학졸업
- 미국 Northern Theological Seminary(노던 신학대학원) 졸업
- 미국 School of Theology at Claremont(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졸업
- 미국 Kentucky State Mental Hospital(켄터키 주립 정신병원) 원목
- 미국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맥코믹 신학대학원) 교환교수

- 미국 Northern Theological Seminary (노던 신학대학원) 교환교수
- The American Psychotherapy Association (미국 심리치료협회)에서 Diplomate (치료전문가) 자격 취득
- American Association of Pastoral Counselors (미국 목회상담협회)에서 PCE (목회상담교수) 자격 취득
- KBS, MBC, SBS, EBS TV와 CBS, K국방방송의 명사특강 강사
- 현 한신대학교 명예교수
- 현 사단법인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 원장
-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명예박사 (Honorary Doctor of Divinity)
- 서울특별시 여성상 수상, 대통령상 국민포장 수상
- 현 학교법인 살림동산 대표
- 저서 : 당신은 혼자 아 아닙니다, 위기와 상담, 내면세계의 치유, 숨겨진 상처의 치유, 아픔 · 상담 · 치유

## 2012년 1학기 장학생 선발

신청마감: 1월 18일(수) / 수여식: 2월 5일(주) 찬양예배시간에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이영기 장로)는 2012년 1학기 장학생선발을 위한 장학생추천을 오늘부터 받고 있다. 장학금은 브리스길라, 송암, 일반장학금으로 분류되며 지원대상은 신대원생, 대학생, 교역자·직원·선교사 자녀, 극빈자, 장애인, 고등학생, 특기자이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평균B이상), 본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특기자는 6개월 이상)이며 교회봉사에 적극적인 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장학회 심사에

필요한 서류(교구추천서 혹은 교회학교추천서 중 택일, 자기소개서 혹은 신앙 간증문 중 택일,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를 1월18일(수)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정의 신청서는 본교회 홈페이지 (<http://www.seoulchurc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서류 제출시 연락처를 기재하고 본인의 사진을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추천이 없는 부서나 교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2012년 교육부서 겨울 성경학교/수련회 일정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 26 (주)~28 (화)	서울교회	나는 빛! 나는 소금!	최인에 전도사
유치부	2. 26 (주)~28 (화)	서울교회	착한 행실을 하나님께!	박다형 전도사
유년부	2. 26 (주)~28 (화)	서울교회	나의 삶이 주님께 영광!	김안성 목사
초등부	2. 26 (주)~28 (화)	서울교회	하나님의 빛!	이신우 전도사
중등부	1. 30 (월)~1.31 (화)	아가페타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박노철 목사 / 노정호 목사
고등부	1. 27 (금)~1.28 (토)	아가페타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박노철 목사 / 이종진 목사
사랑부	2.12 (주일)	서울교회	소금과 빛!	한상은 목사
대학부	2.2 (목)~4 (토)	아가페타운	선택과 집중&변화와 유지-알파리야장이라!	박노철 목사 / 허승일 전도사
청년1부	2.29 (수)~3.1 (목)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비전으로 부흥하는 청년	박노철 목사 / 박진아 목사
청년2부	3.1 (목)~3.3 (토)	아가페타운	세상의 소금과 빛!	박노철 목사 / 오세광 목사
디아스포라	1.27 (금)~28 (토)	아가페타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디아스포라부	박노철 목사 / 박광일 목사
에버다	2.25 (토)	서울교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임규현 목사
신혼가정부	2.11 (토)	서울교회	소금과 빛	한상은 목사
영어예배부	1.24 (금)~25 (토)	아가페타운	ppp-Praise, pray, play	박노철 목사 / 스티븐 마티놀리치 목사
레인보우영아교실	2.3(금)~4(토)	통일교육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자!	박광일 목사

**엘리베이터  
이렇게 사용합시다!**

**성도 여러분!**  
주일 1·2·3부 예배 전후,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합시다.

## 농어촌100교회후원자 명단

5-1.5-2연합다락방 이재원(서현정) 양은정 양지훈(최성희) 김혜수(윤 운) 노중환 임충식(신선주) 정동학(김복순) 김상태(김숙자1) 송동선 정진문 임흥수(하옥봉) 주화인 주동재(김동진) 김명옥 이동만 오정수(이영희) 이훈 박정자 박정선 노문환(장정화) 원강희(원혜리) 이민희(신순자) 신용식(김신영) 권명희 박경주 김선태(김옥순) 이상호2 김만집(이영자) 이원일(장기숙) 육순자 노제현 박종권(김희경) 이영기(이영숙) 임광호(김정미) 이갑진 박경정(이인보) 안홍희(전화진) 최광성 하인선(남태순) 황병석 노진아 전광영(김인숙) 임상현 허경화 제1스데반회 제2권사회 (다음 주 계속)

## 비전 2020 후원자의 밤 개최

1월15일(주) 찬양예배 후에 - 801호

서울교회 비전 2020 후원자의 밤을 다음 주일 찬양예배 후에 갖는다. 우리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육군23사단, 3사단, 해병대교육단의 장병들과 육사, 해사, 간호사관학교 학생들이 함께 예배 드릴 예정이다.

군 복음화를 통하여 민족을 복음화하는 원대한 비전에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교회학교 부장단 신년기도회

1월 12일(목) 오후 6시 만나홀

서울교회 교회학교 지도교역자, 국장, 부장 및 차장 전원이 1월 12일(목) 오후 6시 만나홀에서 신년 기도회를 갖는다. 기도로 준비하여 맡기신 생명을 온전히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박노철 담임목사의 특강이 있을 후 국별 모임을 갖는다.

## 신임 교역자 부임

우리 교회 영아부/유아부, 중등부, 대학부를 담당할 교역자들이 부임하였다.

- 최인에 교육전도사(1987년생) 영아부/유아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학과 졸업  
동신대학교 1학년 재학 중
- 노정호 교육목사(1969년생) 중등부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졸업  
캐나다 틴데일 신학대학원 졸업
- 허승일 교육전도사(1982년생) 대학부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졸업  
동신대학교 1학년 재학 중



노정호 목사



허승일 전도사



최인에 전도사

## 필그림 산우회 신년 산행

필그림 산우회가 신년을 맞아 1월 30일, 31일 양일간 태백산 산행을 한다. 문의 사항은 필그림 산우회(016-232-6599, 손태현 집사)에 하면 된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2012년 위원장에게 듣는다 2

#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 전도! 전도! 전도!

## 교회,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도록



노문환 장로 (전도위원장)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인가요?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 계신가요? 아니면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아서 아예 시작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전도를 하고 싶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망설이고만 계시나요?

전도는 누구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하여야 하는 일인 것도 잘 압니다.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일단 시작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만 한 일도 아니란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문제는 바로 시작해 보는 일입니다.

새해가 시작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과 각오로 새해를 시작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분부 하신일,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전도하는 일을 함께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비슷한 연배의 형제들끼리 그리고 자매들끼리 함께 모여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애쓰는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성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선교회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한곳에서 모여 전체경건회를 가진 후 선교회별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여전도회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예배 및 다락방 공부후 전도회별로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서울교회 성도이면 누구나 오셔서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를 통하여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재능이나 취미를 가진 분들이 함께 모이는 직능별 선교회로 의료선교회, 이미용선교회, 필그림선교회, 족구선교회, 탁구선교회 등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능과 취미활동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전도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70인 전도대가 항상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팀, 희락팀, 화평팀, 인내팀, 자비팀의 축호전도팀, 화요기도팀, 수요기도팀, 목요기도팀, 수요일노방전도팀, 수요일야간전도팀, 금요일노방전도팀, 토요일노방전도팀, 주일노방전도팀, 문서전도팀 그리고 전도지원팀등이 일주일 내내 전도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급변 한 해 우리 모두가 생명과 진리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기를 힘쓰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여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우리 주님께 바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관규 장로 (관리위원장)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교회를 사랑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아름답고 크신 예배당을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건물과 시설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면 깨끗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 같은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서울교회도 이십 세가 넘게 되었으니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예배당을 잘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차할 때도 항상 남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식사 후에도 식기와 의자와 물 컵 하나라도 남을 생각하시면서 사용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주차장에서 고생을 마다하시고 식당에서 그릇과 컵을 닦으면서 아픈 허리와 몸을 추스르시며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수고입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깨끗하고 편리하게 아름답게 보존하고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박진아 목사 (청년1부)

에벤에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해를 청년1부와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1부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부흥하는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고자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매 토요일마다 리더훈련을 통해 말씀으로 무장되고 주일에는 다락방별 성경공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나누며 또한 격월로는 거룩한 독서 훈련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비전과 사명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1부는 하나님의 꿈이며 비전인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새벽이슬 같은 청년으로서 성령 안에서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지체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천국시민양성

# 복음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



어승일 전도사 (대학부)

2012년 우리 대학부는 매일의 Quiet Time을 강조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개인과 그룹의 Bible Study를 활성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현내며, 젊은이 공동체로서의 특성을 살려 동아리/봉사 활동 등의 실천적 모임을 강조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심장이 되어 힘차게 뛰어야 할 우리 서울교회 대학부가 아름다운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며, 역동적인 젊은이의 특성에 맞추어 변화하는 서울교회의 심장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청년2부 공동체는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복음의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골로새서1:22-23).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예배와 다락방 모임,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사회 봉사과 선교(전도를 포함)에 모든 사역의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이면 서로 행복해 하고, 흠어지면 이 행복함을 전하는 청년2부가 되는 것이 2012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고 믿습니다.



오세광 목사 (청년2부)



김안성 목사 (유년부)

금요기도회 찬양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오세광 목사 (010-7222-8271)

2012년도 유년부의 여러 교육실천방안 중 중요한 한 가지는 “52개 요절 필사 및 암송” 프로젝트입니다. 유년기에 암송한 성경말씀은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형성을 위해, 유년부에서는 매주 요절 한 개씩을 필사하고 암송하도록, 공과 및 가정 연계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올 한 해 52개 요절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유년부 어린이들이 2012년도 유년부 표어(“나의 삶이 주께 영광”)대로, 가정과 학교, 또래 집단에서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다형 전도사(유치부)

우리 서울교회 유치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하나 되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때시간 예배의 감격을 느끼며 레이투르기아(예배와 예전), 디다케(가르침과 훈련), 케리그마(선포 및 전도), 코이노니아(교제와 나눔), 디아코니아(봉사와 섬김)의 조화와 균형 속에 아이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올 수 있도록 교육하고자 합니다. 철저한 절기교육과 전도와 선교를 지향하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치부가 되겠습니다.



노정오 목사(중등부)

서울교회 중등부의 2012년의 가장 큰 비전은 세상속에서 빛을 드러내고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소속 학교에서의 모본이 되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관과 그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며 복음전도에 날개를 달자는 소원에서 '내가 학교를 복음으로 변화시키자' 운동을 갖는 것입니다. 'Spec.' (Specification)의 약자, 사양 또는 조건이라는 뜻에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Spirit'이 되어, 삶을 영적 의미와 복음적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실있는 영혼이 되기위해서 기도와 말씀 그리고 도전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머릿만 크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마음에 키워야 중심이 잡히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이종진 목사(고등부)

2012년을 맞이하여 고등부는 칼빈의 전통을 따라 다음의 세 가지 비전을 정했습니다. 첫째, Sola Fide(오직 믿음)입니다. 고등부는 살아있는 믿음의 표현으로서 주일성수를 강조하여 교육하고자 합니다. (출석목표 200명)

둘째, Sola Scriptura(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고등부 시절을 마치기 전에 성취해야 할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간성경공부에 적극 참여하기를 독려하고 나아가, 빌립보서 전체를 모든 고등부 학생들이 외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Sola Gratia(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등부에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일을 강조하여, 기도와 찬양을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하고자 합니다.

고등부 학생들이 기독교소년으로서 자기정체성을 확립하여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벽이슬 같은 청년으로 성장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신우 전도사(초등부)

2012년 초등부는 '세상을 빛내고 맛내는 초등부'라는 주제로 새로이 출발합니다. 초등부 어린이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이 지역과 세상을 향해 생동력 있게 나아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을 품은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초등부지만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서울교회 초등부를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영적 등대로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최인에 전도사(영유아부)

영아부 0세~24개월, 유아부 25개월~5세의 아이들이 매 주일 영아부는 1,2,3부 예배시 403호, 유아부는 11시20분, 2시예배를 706호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표어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에 따라 "나는 빛, 나는 소금"으로 2012년 영·유아부의 표어로 정하고, 한 해 동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주셨다는 것, 성숙한 예배드림의 자세, 말씀의 실천 등을 교육할 것입니다. 영아, 유아 때부터 말씀으로 키우실 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록물 제출 공고

교회는 지난해 작성된 교회 각 부서들의 각종 기록물들을 제출받습니다. 당회 산하기관과 각 위원회, 교구, 남녀선교회, 찬양대, 교회학교 등 모든 부서의 서기나 기록 담당자는 지난 한 해 동안 기록한 각종 기록물(각종 일지 및 회의록, 출석부, 보고서, 주보, 인쇄물, 주요 사진 등)을 1월 말까지 순례자실(704호)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민철 집사, 최영철 집사, 허숙 권사)

아울러 2010년 이전 과거 기록물도 보관중인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컴퓨터 파일인 경우엔 서울교회 홈페이지내에 "기록물 보관실"로 들어오셔서 파일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제목에는 부서명 및 기록물의 이름, 담당자명을 써 주시면 됩니다. (예: 초등부 회의록 홍길동) 제출해주시신 자료는 교회내 역사자료실에서 정리해 연구 보존할 예정입니다.

##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월8일(주일) 의림교회 제직수련회를 인도한다. 9일(월) 북한구원운동 신년기도회에서 설교한다. 10일(화)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신년하례회를 주관한다. 11일(수) 한국기독교교향연맹 총회 및 회원연수회 개최예배 설교한다. 14일(토) PAUA(범아시아,아프리카 대학협의회) 5차대회 주강사로 초대되어 캄보디아로 출국한다

- 특남: 14교구 이규훈 성도 김지현4 성도 가정
- 특녀: 11교구 우도현 성도 송지연 집사 가정
- 수상: 13교구 김장섭 집사 국무총리상 (국가 발전 공로)
- 수상: 호산나대학 박준희 성도(5교구) 경기도지사 표창(장애인 체육발전 기여 공로)
- 이사: 7교구 박찬우2 성도, 정희진 집사 종로구 구기동 136-2 효창마운틴빌 A동 103호
- 전화번호 변경: 박두영 은퇴 장로 전행자 은퇴 권사 가정 031)623-6245

- 주간식당봉사: 제1스데반회(1.8) 제2스데반회(1.15)
- 금주의 식사: 김시환 집사 김정란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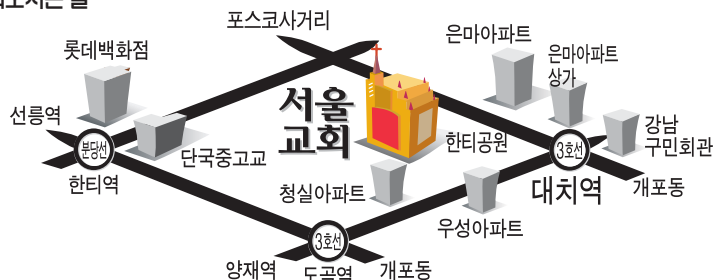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12년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에 더욱 헌신함으로 영적인 성장이 이뤄지며 기도응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2. 교육부서를 담당하시는 모든 교역자님들에게 성령충만을 허락하시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3. 정태기 목사님 초청 금요기도회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풍성하게 입할 수 있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 교회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